

나의 길을 가련다

나 운 영

베토벤은 낮에 고요한 숲속을 혼자 산책하면서 작곡을 했다고 한다. 아마도 썩은 사회보다는 대자연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감이 떠올랐던 모양이다.

그러나 나는 충무로나 명동의 소란한 밤거리를 홀로 걸어 다닐 때 악상惡想 아닌 악상樂想이 잘 떠오른다. 서점, 피아노 상회, 전파사, 양장점, 양화점, 다방, 술집이 나란히 줄지어 있는 이 거리를 거닐 때마다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고 아울러 나의 사명을 완수해야겠다는 것을 다짐하게 된다. 작년에 이어 금년 가을에도 교향악 작품 발표회를 갖기 위해 나는 이 거리를 헤매고 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 오더라도 이 발표회만은 매년 계속하고 싶다. 이것이 곧 '작품을 통한 현실참여'라고 믿기 때문이다.

외국 음악의 수용, 비판 단계를 거친—창조 단계에 있어서 아직도 국적불명의 작품이나 외국2세적 작품을 내놓고 안주할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더욱이 국제 문화교류시대에 있어서 한국적인 현대음악을 창조하려면 꾸준히, 묵묵히—그러나 굳은 신념을 가지고—오직 나의 갈 길을 달려야겠다.

<1967. 9. 세대>